

# 중세일본어에서의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에 관한 고찰

-『오쿠라도라야키라본교겐(大蔵虎明本狂言)』을 중심으로-

양미석\*

yms0803@hanmail.net

##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논문의 입장
- III.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 IV. 『도라야키라본(虎明本)』의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분석
- V. 「是非におよばぬ」·「～(よ)うがない」에 선행하는 조건구
- VI. 맺으며

## Abstract

本論文は『虎明本』に表れている不可能の原因・理由の条件表現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虎明本』に表れている不可能の条件形式にはホドニ・テ・ニヨッテ・トコロデ・バ・アイダ・ニなどがある。これを渋谷勝己(1993)の不可能の条件意味に適用させて、不可能の原因・理由を表す条件形式がどうい様相に出現するかを分析した。

ホドニは<心情・性格条件><能力条件><内的条件><外的条件>、テは<心情・性格条件><内的条件><外的条件>、ニヨッテ・トコロデ・バは<能力条件><外的条件>、アイダ・ニは<外的条件>と結合する傾向が高い。また、『虎明本』における原因・理由を表す代表的な条件形式はホドニとニヨッテであるが、原因・理由の内容が不可能を表す場合、その代表的な条件形式はホドニとテになる。

\*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본어학 전공.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4-2011-1-A00167).

**Key Words** : 도라아키라본, 불가능표현, 외적조건, 내적조건,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Toraakirabon, Expressions of Impossibility, Exterior Causes, Interior Causes, Emotional Causes, Ability Causes)

## I. 들어가며

일본어 가능표현에 관한 연구는 통시적, 공시적인 관점에서 다수의 결과물이 제출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라는 술어부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일본어에서는 「~れる·られる」·「동사의 연체형+ことができる」·「가능동사」, 고전일본어에서는 「~る(るる)·らる(らるる)」·「동사의 연체형+ことなる」·「え+ 부정」형식 등이 주요 고찰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중세일본어까지의 가능표현은 「~할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긍정형식은 대부분 반어나 추측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순수한 의미의 긍정표현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서~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즉 「~해서」에 나타나고 있는 조건형식<sup>1)</sup>의 출현양상을 고찰한다. 중세일본어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형식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이들 형식은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의미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능표현이라는 언어학적 용어는 「~할 수 있다」는 가능의 의미와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의미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할 수 있다」는 가능, 「~할 수 없다」는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sup>2)</sup>

1) 현대일본어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テ・ノデ・カ라는 접속조사이지만, 중세일본어의 원인·이유는 ニヨッテ・アイダニ・トコロデ 등 연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이라는 용어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논문의 입장

본 논문에서는 중세일본어의 대표적 구어자료인 『도라아키라본(虎明本)』<sup>3)</sup>을 번자(翻字)한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篇 上・中・下』<sup>4)</sup>를 고찰 대상으로 삼아, 불가능 술어에 선행하고 있는 조건표현을 고찰한다.

중세일본어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형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小林千草(1973), 松尾弘徳(2000), 矢島正浩(2003), 来田隆(2001), 金三順(2004), 李淑姬(1998) 등 다수의 결과물이 제출되어 있다. 小林千草(1973)는 쇼모노자료(抄物資料), 기리시탄자료(キリシタン資料), 교겐자료(狂言資料)를 대상으로 하여 중세일본어 구어의 원인·이유의 조건구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행한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고 있으며, 松尾弘徳(2000)<sup>5)</sup>는 『교겐로쿠기(狂言六義)』, 李淑姬(1998)<sup>6)</sup>는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의 조건표현을 각각 고찰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중세일본어의 구어에 있어서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조건구에 후속되는 술어 형식 즉 과거·명령·칭유·추측 등에 고찰의 초점이 놓여 있고 가능·불가능 표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渋谷勝己(1993)에서는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나고 있는 조건구에 후속되는 가능 및 불가능 술어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다양한 조건형식을 분류하지 않고 일괄하여 취급하고 있다.<sup>7)</sup>

3)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은 1642년 大蔵虎明에 의해 서사되었음.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을 고찰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梁美錫(2007) 『大蔵虎明本狂言集』의 可能表現研究, 고려대학교, p.4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4) 池田広司・北原保雄(1972)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篇 上・中・下』, 表現社.

5)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의 조건구는 호도니 1750, 니요tte 252, 바 167, 토크로데 53, 아이그 65, 니요리 14, 유에니 8, 니ツイ테 2, 테(테) 106, 기타 6 순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松尾弘徳(2000) 『天理図書館蔵『狂言六義』の原因・理由を表す条件句-ホドニとニヨtteを中心に-』 『語文研究』 89,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p.56.

6)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의 因由形式은 호도니 1822, 니요tte 277, 바 202, 토크로데 95, 아이그 72, 니요리 14, 유에니 16 순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李淑姬(1998) 『大蔵虎明本狂言集の原因・理由を表す接続形式について-その体系化のために-』 『筑波日本語研究』(3), 筑波大学大学院博士課程文芸・言語研究科日本語学研究室, p.43.

7) 渋谷勝己(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3-1, 大阪大学大学

중세일본어까지는 가능표현이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문헌에 나타나는 가능표현 용례가 수적으로 소수라는 점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구와 가능·불가능 술부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능 및 불가능 표현의 전체상을 적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불가능 조건표현에 대한 고찰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가능표현에 사용된 조건의 의미에 따라 조건형식의 출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즉,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이것을 渋谷勝己(1993)의 가능·불가능의 조건 의미에 적용시켜서 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Ⅲ.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 3.1. 渋谷勝己(1993)의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언어 운용의 특성상 「~할 수 있다」라는 가능술어에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구의 출현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고, 이에 대해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술어에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구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1a) 明日、行ける。(내일 갈 수 있다.)

(1b) 明日、事情があつて行けない。(내일 사정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와 같이, (1a)의 가능에서는 특정 상황을 수반하지 않는 한 「行ける(갈 수 있다)」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표출할 이유가 없지만, (1b)의 불가능에서는 「行けない(갈 수 없다)」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渋谷勝己(1993)에서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에 의한 가능 및 불가능의 의미를 동작주체의 심정·성격조건<sup>8)</sup>, 동작주체의 능력조건<sup>9)</sup>, 동작주체의 내적조

---

院文学研究科、pp.95-96.

건<sup>10</sup>), 동작주체의 외적조건<sup>11</sup>), 동작주체의 외적강제조건<sup>12</sup>)으로 분류하고(이하, 본 논문에서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 <외적강제조건>으로 약칭하기로 함)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はずかしくて結局彼女にかけられなかった。 <심정·성격조건>  
(부끄러워서 결국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 (3) 日本選手団は実力の差が出てアメリカに勝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 <능력조건>  
(일본선수단은 실력 차이가 나서 미국을 이길 수 없었다.)
- (4) その日からだの調子が悪くて会議に出席できなかった。 <내적조건>  
(그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었다)
- (5) その日は忙しくて結局会議に出席できなかった。 <외적조건>  
(그 날은 바빠서 결국 회의에 출석할 수 없었다.)
- (6) あいつが結婚するなんて考えただけで笑えてしまった。 <외적강제조건>  
(그 자가 결혼한다니 생각한 것만으로 웃음이 나와 버렸다.)
- (渋谷勝己 1993:p.29)

(2)~(5)와 같이 현대일본어에서는 접속조사 「テ」를 사용하여 불가능의 조건을 표현하는데, 渋谷勝己(1993)에서는 「テ」에 선행하고 있는 불가능 조건의 의미를 (2)의 「はずかしくて(부끄러워서)」라는 <심정·성격조건>, (3)의 「実力の差が出て(실력 차이가 나서)」라는 <능력조건>, (4) 「からだの調子が悪くて(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는 <내적조건가능>, (5) 「忙しくて(바빠서)」라는 <외적조건가능>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6)의 「考えただけで(생각한 것만으로)」는 <외적강제조건>으로 후속술어 「笑える(웃음이 나오다)」가 자발에 해당하기 때문

8) 동작주 내부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심정적·성격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능·불가능을 나타내는 가능. 가능의 주체는 1인칭에만 한정된다.

9) 동작주가 지닌 어느 정도 연속적인 능력에 의해서 동작 실현이 가능·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10) 동작주의 일시적인 기본적·육체적 조건에 의해 동작 실현이 가능·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11) 동작실현을 위한 조건이 동작주체의 외부에 있는 점에서는 외적조건가능과 동일하지만, 그 외부조건이 동작주체의 의지의 개입과는 무관하다.

12) 동작실현을 위한 조건이 동작주체의 외부에 있는 점에서는 외적조건가능과 동일하지만, 그 외부조건이 동작주체의 의지의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발에 해당한다.

에 본 논문에서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논문에서 渋谷勝己(1993)의 분류를 선정한 이유는 가능표현에 대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다각적인 연구, 그리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불가능의 조건표현을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 중세일본어의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가능 및 불가능에 관한 표현은 상대일본어·중고일본어까지의 문헌자료에서는 출현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중세일본어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중세일본어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는 가능·불가능 형식과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형식이 다종다양하게 전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언어현상은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조건표현에서도 확인되며 여러 유형의 구문이 조건표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오쿠라 도라아키라본 교겐(大蔵虎明本狂言)』(이하, 『도라아키라본(虎明本)』으로 약칭함)에 나타나는 원인·이유의 조건구와 불가능 술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3>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의 원인·이유의 조건구와 불가능 술어

원인·이유의 조건구 형식	불가능 술어 형식
ホドニ, ニヨッテ, テ, トコロデ, バ, アイダ, ニ	「することかなる」·「명사+かなる」의 부정, 「るる·らるる」의 부정, 「え+否定」, 「かなう」 등의 부정

## IV. 『도라아키라본(虎明本)』의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 분석

梁美錫(2007)에서는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가능 및 불가능 표현을 추출하여 총 용례수와 그 비율을 제시했다.<sup>13)</sup>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가능·불가능의 용례는 총 378개인데 이들 용례 중에서 「~해서 ~할 수

없다」의 구문, 즉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구+불가능술어」의 형식을 구비한 예는 총 104개 정도로 수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 이하, 이들 용례에 나타난 불가능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의 의미 및 그 형식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sup>14)</sup>

#### 4.1.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조건표현 용례

小林千草(1973)는 중세일본어의 구어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통시적인 관점에서 원인·이유의 조건표현에 있어서의 조건형식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 『도라아키라본(虎明本)』·『도라키요본(虎清本)』·『도라히로본(虎寛本)』에 나타나고 있는 조건형식<sup>15)</sup>을 조사하여 그 용례수를 제시하고 있다.<sup>16)</sup>

본 논문에서는 小林千草(1973)에 기초하여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나고 있는 불가능의 조건형식을 추출하여 그 의미용법을 검토한다.

##### 4.1.1. ホドニ

(7) (簀)/私は**はづかしうござるほどに**ゑまいるまひ (『二人袴』上・p.390:9)

(사위)/저는 창피해서 갈 수 없어요. <심정·성격조건>

(8) (太郎冠者)/いやあれは**としがよつてござるほどに**、えとりますまひ(『鼻取ずまふ』上・p.190:2)

13) 「~ことを得る」(1례. 0%), 「~得る」(3례. 1%), 「~ことがかなふ」(0%), 「명사+가かなふ」(1례. 0%), 「~ことがなる」(105례. 27%), 「명사+가なる」(52례. 13%), 「漢語+なる」(2례. 1%), 「え+否定」(83례. 21%), 「る·らる(るる·らるる)」(97례. 25%), 「~がたし」(11례. 3%), 「~かぬ」(21례. 5%), 「~やすし」(2례. 1%), 「~にくし」(11례. 3%) 梁美錫(2007) 『大藏虎明本狂言集』의 可能表現研究, 고려대학교, p.210.

14) 고전일본어와 현대일본어의 경계선상에 있는 중세일본어는 어휘마다 다중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서 불가능표현에 관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なる는 중세일본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인데 금지나 당위성과 같은 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なる가 「동사의 연체형+ことがなる」·「명사+가なる」와 같은 명확히 가능형식을 취할 경우에만 용례 대상에 산입하고,なる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15) バ・ホドニ・アイダ・トコロデ・ニヨッテ・ニヨリ・ユエニ・ユエ・ママニ・ママ・ニツイテ・ニ・デ・テ

16) 小林千草(1973) 「中世口語における原因・理由を表す条件句」 『国語学』 94, p.30.

(다로카자)/아니, 그 자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능력조건>

(9) (太郎冠者)/御存(ごぞんじ)のことく、すね(脛)にあかゞりがきれてござる所で、水をみまらすれ共、六こん(根)へこたえてうづきまらするほどに、まし(増)てやわた(渡)る事は、中々なりませぬ (『あかゞり』中・p.92:14)  
(다로카자)/아시다시피 정강이에 살갓이 텃기에 물을 봐도 온몸으로 반응이 와서 육신육신 거리니 더군다나 도저히 건널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내적조건>

(10) (伯父)/さりながら身どもは叶はぬ用の儀が有程に、此度は參る事ならぬ、(『すわうおとし』上・p.317:8)  
(백부)/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갈 수가 없다. <외적조건>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호ドニ는 총 32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7)의 「はづかしうござるほどに(창피해서)」와 같이 <심정·성격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3개, (8)의 「としがよつてござるほどに(나이가 들어서)」와 같이 <능력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1개, (9)의 「六こん(根)へこたえてうづきまらするほどに(온몸으로 반응이 와서 육신육신 거리니)」와 같이 <내적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2개, (10)의 「叶はぬ用の儀が有程に(중요한 일이 있어서)」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26개 발견된다. 따라서 호ドニ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4.1.2. テ

(11) (新発意)/其事を今おもひいだ(思出)せは、おかしうてならぬ (『とびこゑ』中・p.351:14)

(심보치)/그 일을 지금 생각하니 우스워서 참을 수 없소. <심정·성격조건>

(12) (主)/太郎くわじやは、しびりがおこつて、立もい(居)のならぬていじや程に、なるまいといふてやれ (『しびり』中・p.100:4)

(주인)/다로카자는 몸이 저려서 서 있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이니 안 되겠다고 말해줘야지. <내적조건>



- (13) (夫)/子共のみやげも、もとめてくだりたかつたれども、なが(長)のざい(在)京なれば、あたいが(値)なふてゑか(買)ふてこ(来)なんだ (『かゞみ男』中・p.181:7)  
 (남편)/자식 선물도 구해서 하향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교토에 머무르느라 돈이 없어서 사오지 못했소. <외적조건>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テ는 총 30개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11)의 「おかしうて(우스워서)」와 같이 <심정·성격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2개, (12)의 「しびりがおこつて(몸이 저려서)」와 같이 <내적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12개, (13)의 「あた이가(値)なふて(돈이 없어서)」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16개 확인된다.

이와 같이 テ는 <심정·성격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으로 사용되고 있고, <능력조건>의 경우에는 다음의 (14)와 같이 デ가 쓰이고 있다.

- (14) (仲裁人)/おぬしがどもりで、いひわけがなるまひとおもふとみへた (『どもり』中・p.187:11)  
 (중재인)/당신이 말더듬이라서 변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능력조건>

그런데 「명사+デ」와 같이 쓰이는 デ는 「~이어서」 「~로」 등으로 해석되어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デ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 4.1.3. ニヨッテ

- (15) (夫)/わたくしはどもりで御ざるに依て、いひわけを彙致すまひと思つて、さやうの事を申かくるとぞんずる程に、うたひぶしにかかつて、申わけを致てきかせませう (『どもり』中・p.187:12)  
 (남편)/저는 말더듬이이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해명을 해서 들려드리지요.

<능력조건>

(16) (夫)/れい(例)の山のかみが、すこしの間もはなさぬに依て、参る事がならいでめいわく(迷惑)仕た、(「はなご」中・p.208:10)  
 (남편)/그 여편네가 조금도 (나를) 놓아주지 않기에 갈 수 없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외적조건>

(17) (ちんば)/そう(総)じて竹の子にかぎつて、人がほし(欲)がる物じやによつて、ゆだん(油断)がならぬ、(「竹の子」下・p.84:9)  
 (절름발이)/무릇 죽순에 한해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니 방심할 수 없다. <외적조건>

(18) (太郎冠者)/その御事でござる、久々かよ(通)ひのさん用もいたされひて、わたくしまでめんほく(面目)もござらぬによつて、おのつからゑまいらぬ(「ちどり」中・p.151:15)  
 (다로카자)/그것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외상 대금 계산도 (우리 주인님이) 하지 않으셔서 저까지 면목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올 수 없습니다. <외적조건+내적조건>

『도리아키라본(虎明本)』에서 ニヨッテ는 총 19개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15)의 「どもりで御ざるに依て(말더듬이이기 때문에)」와 같이 <능력조건>을 나타내는 용례가 1개, (16)(17)의 「すこしの間もはなさぬに依て(조금도 나를 놓아주지 않기에)」, 「人がほし(欲)がる物じやによつて(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니)」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용례는 17개 확인된다. 그런데 (18)은 <외적조건>과 <내적조건>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a] 久々かよ(通)ひのさん用もいたされひて  
 오랫동안 외상 대금 계산도 (우리 주인님이) 하지 않으셔서 <외적조건>
- [b] わたくしまでめんほく(面目)もござらぬによつて  
 저까지 면목이 없기에 <내적조건>

과 같이 불가능을 나타내는 술어 「ゑまいらぬ(올 수 없다)」에 선행하는 원인·

이유외의 조건구는 2개가 존재한다. [a]의 テ조건구는 『오랫동안 외상대금도 주인님이 지불하지 않아서 다로카자 자신이 올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적조건>에, 그리고 [b]의 ニヨッテ구는 『그래서 자신까지 면목이 없어서 올 수 없다』의 뜻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조건>에 해당된다.

ニヨッテ는 (15)(16)(17)과 같이 통상 <능력조건> <외적조건>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18)은 불가능을 나타내는 단일술어에 대해 2개의 조건구가 사용되고 있다. 즉 [~テ ~ニヨッテ] 와 같이 이중의 조건구가 사용되고 있고, ニヨッテ가 <내적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 李淑姬(2005)<sup>17</sup>에서는 『因由形式ニヨッテの階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리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因由形式간의 포함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ニヨッテ ~ホドニ] [~ニヨリ ~アイダ]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テ ~ニヨッテ]의 구조를 보완하여 불가능을 나타내는 2중 조건구를 적시한다.

#### 4.1.4. トコロデ

(19) (主)/なんぞ道具をもた(持)せたくれ共、汝一人じや所で、ゑもたせひて口  
おし(惜)ひな (『どんごむさう』中・p.72:12)

(주인)/뭔가 도구(道具)를 들게 하고 싶지만, 너 혼자이니 들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구나. <외적조건>

(20) ((/さて留守にて、ざとう、さてVさびしひ事じや、あれがつんぼじや所で、  
はなしはならず、いや思ひだいた、)) (『きかず座頭』中・p.429:10)

((/한편, 집을 지키며 맹인, 참으로 적적하구나. 저 자가 귀머거리라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아! 생각났다.)) <능력조건>

『도리아키라본(虎明本)』에서 토크로데는 총 6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19)의 『汝一人じや所で(너 혼자이니)』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예가 5개, (20)의

17) 李淑姬(2005) 『中世日本語の因由形式ニヨッテの階層』 『日本学報』63輯、韓国日本学会、pp.136-137.

『つんぼじゃ所で(귀머거리라서)』와 같이 <능력조건>을 나타내는 예가 1개 확인된다.

#### 4.1.5. バ

(21) (出家)/うるし(漆)なければぬ(塗)らずして (『しゅじやう』中・p.340:11)

(출가승)/옷이 없어서 칠할 수가 없어서. <외적조건>

(22) (牛博勞)/此びくおや(比丘親)の追善をなされたくおほしめ(思召)せども、  
ひんせん(貧賤)の御身なれはかな(叶)はず、ある所へ行て牛を一ひき(匹)ぬ  
すみ給ふ、(『牛ばくらう』下・p.133:7)

(소거간꾼)이 비구는 부모님의 추선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셨으나, 가난한 몸이기에 할 수 없으므로 어느 곳에 가서 소를 한 마리 훔치신다.

중세일본어의 『이연형(已然形)+バ』는 확정조건과 가정조건 of 용법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의 의미관계에 따라 불가능을 나타내는 원인·이유의 조건구 여부가 판정된다.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 사용된 바에 선행되는 조건의 의미는 (21)의 『うるし(漆)なければ(옷이 없어서)』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예가 6개, (22)의 『ひんせん(貧賤)の御身なれは(가난한 몸이기에)』와 같이 <능력조건>을 나타내는 예가 1개, 총 7개 쓰이고 있다.

#### 4.1.6. アイダ

(23) (太郎冠者)/あれをせいばひ(成敗)致さずは、某を御せいばひあらふずると  
仰らるゝ間〇身にかへられず、おうけ(承)を申してござる、(『ぶあく(武悪)』  
上・p.305:14)

(다로카자)/그 자를 처치하지 않으면 나를 처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죽을 수 없어서 응했습니다. <외적조건>

(24) /~勅使の御前におき申候間、又みる事はなるまじく候、(『橘』下・p.155:4)

/~칙사의 여전에 두시니 또다시 (이 글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 アイダ는 (23)의 「仰らるゝ間(말씀하시니)」, (24)의 「勅使の御前におき申候間(칙사의 어전에 두시니)」와 같이 <외적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3개가 확인된다.

#### 4.1.7. 二

(25) (主)/此比は方々の花ざかりじやといへども、ひま(暇)のなさに、はな見をする事もならなんだ、(「花あらそひ」中・p.90:5)  
(주인)/요즘은 여기저기에서 꽃이 한창이라고 해도 잠이 없어서 꽃구경을 할 수도 없었다. <외적조건>

(26) (男)/<<~こひ(恋々)て、まれにあふ(会)よ(夜)は、日のづ(出)るまでも、によどすれは、まだ夜もふかきにがう、がう、V、とつくにまたね(寝)られぬ>> (「はなご」中・p.213:9,12)  
(남자)/<<~사랑하며 어찌다 만나는 밤은 해가 뜰 때까지 자려고 하니 아직 밤도 깊은데 멍멍 멍 멍을 쳐서 또 잘 수 없다.>> <외적조건>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는 (25)의 「ひま(暇)의나さに(잠이 없어서)」, (26)의 「가う、V、とつくに(멍멍 멍 멍을 쳐서)」와 같이 <외적조건>을 나타내는 二의 예가 총 3개 확인된다.

## 4.2.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조건표현 분석

이상 4.1.1~4.1.7에서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구+불가능 술어」의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불가능의 예, 즉 「~해서 ~할 수 없다」에서 「~해서」에 상당하는 의미를 실현하는 다양한 조건형식의 예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ホドニ・テ・ニヨッテ・トコロデ 등의 형식에 선행하는 조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표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조건 의미

불가능의 접속형식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	합계
ホドニ	3	1	9	24	37
テ	2	-	12	16	30
ニヨッテ	-	1	-	17	18
トコロデ	-	1	-	5	6
バ	-	1	-	6	7
アイダ	-	-	-	3	3
ニ	-	-	-	3	3

상기의 <표 2>를 통해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의미에 의한 조건형식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중세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형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논고가 호도니와 니요tte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호도니와 니요tte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불가능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조건형식으로는 테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호도니와 니요tte는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건형식이며, 호도니는 불가능표현에 있어서도 주요한 접속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일본어의 대표적인 조건형식인 호도니와 니요tte에 관해, 小林千草(1973)는 조건구와 후속술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표현형식은 필연확정 조건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형식을 경계로 전건과 후건이 서로 관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건의 종류로부터 호도니·니요tte를 살펴보자. 후건의 종류는 永野賢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a)추량(상상·추측), (b)견해(의견·주장), (c)의지(의향·결심), (d)명령(금지), (e)의뢰(간청·권유), (f)의문(질문·의심·반어), (g)사실의 서술의 7종류로 한다.

…중략…

(1)니요tte는 후건이 (g)사실의 객관적 서술을 나타낼 경우에 사용되고,

(2)ホドニ는 후건이 (d)명령 (e)의뢰를 나타낼 경우에 ニコッテ가 오는 것을 막는다.

(小林千草 1973:p.37)

小林千草(1973)에 따르면, ニコッテ의 후속 술어에는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는 추량·의지·명령·의뢰 등이 오지 못하고, 『사실의 객관적 서술』을 나타내는 데 한정되지만 호도니에서는 이러한 문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호도니와 니코tte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호도니·니코tte의 후건에는 불가능(가능)술어가 올 수 있다.

호도니에 선행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을 나타낸다.

니코tte에 선행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는 주로 <능력조건> <외적조건>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호도니가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을 함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니코tte가 주로 <능력조건> <외적조건>을 내포하는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니코tte의 후건은 사실의 객관적 서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에 선행하는 조건구도 이에 상응하여 객관적인 사항이 오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능력조건> <외적조건>은 불가능의 동작주체 이외에도 제3자가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심정·성격조건>은 불가능의 동작주체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인정된다. 호도니가 니코tte에 비해 출현빈도에 있어서 다수를 점하는 것은 金三順(2004)<sup>18)</sup>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도니는 전건과 후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표현인 경우에도 그리고 주관적 표현인 경우에도 사용되는 데에 기인한다.

이상,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조건표현, 다시 말해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의미와 그 형식에 관해 고찰하고 각각의 용례수를 확인했다.

18) 金三順(2004) 『原因理由を表すホドニの史的変遷』 『日本学報』 59輯, pp.38-39. p.42.

## V. 「是非におよばぬ」・「～(よ)うがない」에 선행하는 조건구

상대일본어·중고일본어의 언어자료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지 않았던 가능·불가능표현이 중세일본어에 접어들어 그 빈도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 용례는 풍부하지 않다. 불가능을 나타내는 용례의 제약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그 대안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통상 불가능형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불가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是非におよばぬ」와 「～(よ)うがない」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선행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어떤 조건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5.1.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조건구

「是非におよばぬ」<sup>19)</sup>는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화자 자신이 아니라 화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조건이 실현하는 의미내용은 <외적 조건>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하,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원인·이유가 어떤 의미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유의 조건형식은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7) (猿引)/近比めいわく(迷惑)な所へ参りかゝつて、ぜひに及ばぬ、(「うつぼざる」上・p.259:11)  
(원승이재주꾼)/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가 없구나. <외적 조건>

- (28) (妻)/わらはもいや(嫌)ではおりなけれ共、はな(離)さぬ程にぜひ(是非)もなひ(「きるざとう」中・p.438:5)

19) 「是非におよばぬ(是非)もなひ」: 「よしあし、やり方などをあれこれ論議する必要はないとか、もはやそういう段階でない状態をいう。どうしようもない。やむを得ない」(日本国語大辞典).



(아내)/저도 싫진 않지만, (남편이) 놓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도 없습니다. <외적 조건>

(29) (夫)/そなたのさやうにおしやらふと思ふて、かへりたかつたれ共、さきVへむり(無理)につ(連)れていかれたに依て、ぜひ(是非)나ふて久しい(居)まらした(『みかづき』中・p.238:11) (남편)/당신이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해서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리저리 무리하게 끌려 다녀서 어쩔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외적조건>

(30) (太郎冠者)/汝が云も尤なれ共、さりながらおぬしは事の外力もつよし、その上ひやうほう(兵法)などがよひ程に、たばからず는なるまひと、たの(頼)ふだ人も仰付られた所で、ぜひもなひ、(『ぶあく(武悪)』上・p.308:9) (다로카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당하지만, 그러나 너는 아주 힘도 세고 게다가 무예가 뛰어나니 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인님도 분부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외적조건>

(31) (弟)/いさかはふ事もなひが、子細をし(知)らぬ間こそぜひ(是非)もなけれ、(『しやてい』下・p.110:12) (동생)/싸울 일도 없는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외적조건>

(32) (出家)/もはや日もさがつてござれ共、かなはぬ用なれはぜひ(是非)もござらぬ、急でまいらふ(『あくぼう』中・p.343:4) (출가승)/이미 해도 떨어졌지만 긴요한 일이니 어쩔 수도 없습니다. 서둘러서 가야겠습니다. <외적조건>

(33) (男)/男の身なれは是非も御ざなひ、今夜は宵からまいつてふ(吹)かふと存る(『ふきとり』中・p.255:6) (남자)/남자의 몸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밤은 초저녁부터 나가서 불려고 생각합니다. <능력조건>

(27)의 『めいわく(迷惑)な所へ参りかゝつて(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르러서)』, (28)

의 「はな(離)さぬ程に(남편이)놓아주지 않으니」, (29)의 「つ(連)れていかれたに依て(끌려다녀서)」, (30)의 「たの(頼)ふだ人も仰付られた所で(주인님도 분부하셨으니)」, (31)의 「子細をし(知)らぬ間(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32)의 「かなはぬ用なれは(긴요한 일이니)」, (33)의 「男の身なれは(남자의 몸이니)」에서와 같이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원인·이유의 조건구에는 テ·ホドニ·ニヨotte·トコロデ·アイダ·バ와 같이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에서 나타내는 불가능의 원인·이유는 (27)~(32)와 같이 불가능의 주체인 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상황에 처해 있는 <외적조건>을 의미하거나, (33)과 같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능력조건>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심정·성격조건> <내적조건>의 의미로 쓰이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是非におよばぬ」라는 연어 형식은 상황적인 불가능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선행하는 원인·이유의 내용도 <외적조건>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는 「是非におよばぬ」가 총 76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인·이유의 조건구의 형식을 구비한 예는 27개 확인된다.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조건형식과 그 의미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5> 「是非におよばぬ」의 원인·이유의 조건형식 및 의미

원인·이유의 조건형식	원인·이유의 의미
ホドニ(7), ニヨtte(4), テ(1), アイダ(1), トコロデ(1)	<외적조건> (14)
バ(13)	<능력조건>(1), <외적조건>(12)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是非におよばぬ」에 선행하는 조건형식은 「이연형(已然形)+バ」<sup>20)</sup>가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바에 관해 小林千草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겐의 바는 (...중략...) 독백체에 사용되는 것이 많은데, 이 독백체는 등장인물

20)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표현형식은 필연확정조건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已然形+バ(확정조건)」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未然形+バ(가정조건)」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자기의 신분이나 거기에 온 취지 등을 말하는 장면이며 격식을 차린 말투가 요구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에 ナレバ・ゴザレバ라는 고정적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가 무대용어으로써 구어답게 사용된 것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小林千草 1973:p.3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은 본인이 서둘러서 가야 하는 취지를 밝히는 내용의 바조건구, (31)은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바조건구로 『是非におよばぬ』에 연결되어 동작주체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5.2. 「~(よ)うがない」에 선행하는 조건구

「~(よ)うがない」는 동사의 미연형(未然形)에 조동사 「う・よう」가 접속하여 「~할 방법이 없다/~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よ)うがない」는 『是非におよばぬ』와는 달리 연어 자체에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화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에 국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식은 불가능의 원인·이유가 <외적조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도리아키라본(虎明本)』에 사용되는 「~(よ)うがない」의 예를 검토한다.

(34) (男)/宿でははづかしうてけいこ(稽古)をいたさうやうがなひ (『うり盗人』下・p.41:9)

(남자)/집에서는 창피해서 연습할 수 없다. <심정·성격조건>

(35) (雷)/某は神なりで有が、是へ只今おちたが、何なりともとり付物があれは天上すれ共、とりつかふ物がなひによつて、事の外腰をうつて、今はてん上せうやうがなひ、(『かみなり』中・p.14:8)

(천둥)/나는 천둥인데 여기로 방금 떨어졌지만, 무엇이든지 잡을 것이 있으면 승천하겠거늘 잡을 것이 없어 심하게 허리를 찢어서 지금은 승천할 수가 없다. <내적조건>

(36) (金藤左衛門)/さてV世上にはつよ(強)ひものが有、さういふところ(殺)さう

やうもなし、(『きん藤左衛門』下・p.50:2)

(킨토자에몬)/참으로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 죽일 수도 없다.  
<외적조건>

(37) (医師)/たまゝ脈をとらせ薬をのふ(飲)でも、しかゝとやくだい(薬代)もくれぬに依て、めこをはごく(育)まふやうも御ざなひ、(『かみなり』中・p.13:7)  
(의사)/간혹 맥을 짚고 약을 먹어도 이래저래 하여 약값도 주지 않기 때문에 처자를 먹여 살릴 수도 없다. <외적조건>

(38) (夫)/めこ(妻子)のみやげ(土産)などかひ(買)とつて、くだりたうござれども、なが(長)の在京なれば、つかひきつて、あたい(値)が御ざなひによつて、いたさうやうがおり나ひ (『かゞみ男』中・p.179:6)  
(남편)/처자식의 선물을 사서 내려가고 싶지만, 오랫동안 수도에 있었기에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적>

(39) (目代)/兩人ながら一字一点ちが(違)はずよう申である、いつはう(一方)があや(誤)まつたらは、ようい(言)ふた方へや(遣)らふずれ共、いづれもおなじ(同)やうなれば、かたづけうやうがなひ、(『茶つぼ』下・p.23:1)  
(대관)/두 사람 모두 아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한 쪽이 틀리는 말을 한다면 옳은 말을 한 쪽에게 주겠는데, 모두 똑같으니 판단할 수가 없다. <외적조건>

(40) (目代)/いや互にさやうにいふ所で、何共せうやうがなひ、身共が思ふは、なんぞせうぶ(勝負)をさせて、其かちまけに依て、いひ付うと思ふ (『れんじやく』中・p.248:13)  
(대관)/아, 서로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어떤 승부를 시켜서 그 이기고 집에 따라서 말하겠다. <외적조건>

(41) (躰)/れい(例)のいたつら者共と、かのつのをなわ(縄)になふて、仕合がわる(悪)ふて、腰のまわりの事は申におよばず、さいし(妻子)までうちいれた程に、宿へもどらふやうが御ざなひ、(『三人がたは』下・p.44:5)  
(앞은뺨이)/그 불량자들과 심하게 도박을 하여 저서 칼은 말할 것도 없이 처자식까지 끌어들이어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적조건>

(34)의 「はづかしうて(창피해서)」, (35)의 「事の外腰をうつつ(심하게 허리를 쫓아서)」, (36)의 「さういふて(그렇게 말하니)」, (37)의 「やくだい(薬代)もくれぬに依て(약값도 주지 않기 때문에)」, (38)의 「あたい(値)が御ざなひによつて(돈이 없어서)」, (39)의 「いづれもおなじ(同)やうなれは(모두 똑같으니)」, (40)의 「互にさやうにいふ所で(서로 그렇게 말하니)」, (41)의 「さいし(妻子)までうちいれた程に(처자식까지 도박에 끌어들여서)」에서 알 수 있듯이 「~(よ)うがない」에 선행하는 형식에는 テ・ニヨツテ・トコロデ・ホドニ・バ와 같은 다양한 문법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よ)うがない」는 이들 형식에 의해 표현되는 원인·이유의 의미가 <심정·성격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임을 실현하고 있다. 「~(よ)うがない」에 선행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의 조건형식과 그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よ)うがない」의 원인·이유의 조건형식 및 의미

원인·이유의 조건형식	원인·이유의 의미
テ(3)	<심정·성격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
ニヨツテ(6), トコロデ(2), ホドニ(1), バ(1)	<외적조건>

## VI. 맺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표현을 검토했는데, 그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일본어의 대표적인 원인·이유의 조건형식이 호도니와 니요ツ테라는 점은 『도라아키라본(虎明本)』에서도 확인되지만, 원인·이유의 내용이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조건에서는 「テ」가 주요한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건형식에는 테·호도니·니요ツ테·토コロ데·아이다·니가 사용되는데, 이들 형식은 선행하는 원인·이유의 의미에 따라 어떤 특정 형식만 가능하거나 또는 복수의 형식이 모두 성립 가능하

는 점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도 인정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ホドニ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 <외적조건>을, ㄷ는 <심정·성격조건> <능력조건> <내적조건>을, ニヨッテ・トコロデ・바는 <외적조건> <능력조건>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アイダ와 ㄷ는 특히 <외적조건>과의 결합이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ㄷ는 현대일본어에서도 가능 및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조사로 그 의미용법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도니·니요tte·토코로데·아이다·ㄷ 등은 불가능의 원인·이유로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통해 중세일본어의 가능 및 불가능 표현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찰 대상이 『도라이키라본(虎明本)』에 나타난 불가능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을 중세일본어 구어에 나타나는 불가능의 원인·이유를 담당하는 조건형식 일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의 과제로는 다른 교겐류의 구어자료인 오쿠라류(大蔵流), 이즈미류(和泉流), 사기류(鷺流), 그리고 쇼모노 자료(抄物資料), 기리시탄자료(キリシタン資料)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가능의 조건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일본어 가능문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텍스트>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本文篇 上・中・下』、表現社.

#### <참고문헌>

金三順(2004) 「原因理由を表すホドニの史的変遷 -カラとの関係を中心に-」 『日本学報』

59輯、韓国日本学会、pp.38-39. p.42.

梁美錫(2007) 「『大蔵虎明本狂言集』의 可能表現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10.

李淑姬(2005) 「中世日本語の因由形式ニヨッテの階層」 『日本学報』 63輯、韓国日本学会、

pp.136-137.

\_\_\_\_\_(2004) 『中世日本語の原因・理由を表す接続形式の階層構造-抄物資料を中心に-』  
『日本学報』58輯、韓国日本学会、p.196.

\_\_\_\_\_(1998) 『大蔵虎明本狂言集の原因・理由を表す接続形式について-その体系化のため  
に-』 『筑波日本語研究』第3号、筑波大学大学院博士課程文芸・言語研究科日本語  
学研究室、p.43.

来田隆(2001) 『洞門抄物におけるホドニとニヨッテ』 『抄物による室町時代語の研究』、清文  
堂、p.266.

小林千草(1973) 『中世口語における原因・理由を表す条件句』 『国語学』 94、pp.29-37.

渋谷勝己(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3-1、大阪大学大  
学院文学研究科、p.29, pp.95-96.

松尾弘徳(2000) 『天理図書館蔵 『狂言六義』の原因・理由を表す条件句 - ホドニとニヨッテ  
を中心に -』 『語文研究』89 1-13、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p.56.

矢島正浩(2003) 『近世中期上方語における原因・理由表現』 『国語と国文学』 80-7、p.55-57

#### <사전류>

日本大辞典刊行会 編 『日本国語大辞典』 第2版、小学館、1977.

室町時代語辞典編修委員会 編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三省堂、2001.

❖ 투고일 : 2012.06.30

❖ 심사일 : 2012.07.24

❖ 심사완료일 : 2012.08.06